

제311회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1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2년11월6일(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예산안(계속)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나. 환경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나. 환경부 소관
3.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심사된 안건

- | | |
|--|---|
| 1. 2013년도 예산안(계속) | 2 |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
| 나. 환경부 소관 | |
| 다. 기상청 소관 | |
|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2 |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
| 나. 환경부 소관 | |
| 3.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2 |
| 가. 환경부 소관 | |
| 1. 2013년도 예산안(계속) | 8 |
| 나. 환경부 소관 | |
| 다. 기상청 소관 | |
|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8 |
| 나. 환경부 소관 | |
| 3.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8 |
| 가. 환경부 소관 | |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날짜로

우리 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으로 새누리당 주영순 위원, 김상민 위원이 사임하시고 서용교 위원, 최봉홍 위원이 각각 보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등을 일괄 상정해서 심의하고, 오후에는 어제 심사하다 보류된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만 참석하고 있어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이 시급한 일이고 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일단 보고를 받고 질의는 여야 간에 협의를 거쳐서 여야 간에 함께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계속)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나. 환경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나. 환경부 소관

3.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10시21분)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 갑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환경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기상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환경부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의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5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2013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3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1.6%를 기록하는 등 작년 3분기 이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MF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들이 잇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일부 기업은 경기둔화에 대비해서 구조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경영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용상황의 경우,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취업자 수가 평균 46만 8000명 증가하는 등 총량적 측면에서는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취업자 증가가 5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이면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조건의 차이 등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노동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일할 기회 부족과 일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13조 8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13조 1131억 원보다 7059억 원, 5.4%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지출은 1조 9428억 원으로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7.9% 늘어난 1조 8869억 원, 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 에너지 및 자원사업,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합쳐서 559억 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의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3.8% 늘어난 11조 8762억 원입니다.

기금별로 보면 고용보험기금이 6조 4749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조 7745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이 3002억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2465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이 800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년·여성·장년 등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데 재정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을 4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하는 등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모성 보호·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해서 여성의 경력 단절 없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한편 중견 인력 경력활용 재취업 지원사업을 편성하는 등 장년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을 확산하기 위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력·학벌이 아닌 능력·실력 중심의 채용관행을 확산하기 위해서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자격과 현장을 연계해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고졸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확대, 직업진로지도 강화 등 현장의 숙련기술자가 우대받는 여건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업능력 개발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국가 전략직종과 신성장동력 분야의 인력양성 규모를 확대하고, 인력 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체계적 현장훈련, HRD 자문 등 현장 중심의 특화된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일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금년 대비 2142억 원을 증액한 47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저소득층은 이를 통한 빈곤 탈출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립지원 상담사를 자치단체에 확대 배치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참여수당도 확대하는 한편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불합리한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변호사·노무사 등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노동분쟁에 대한 상담·조정을 강화하는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특화된 재해예방 지원과 함께 근로자 건강센터를 두 배로 확대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공동의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만 7000여 고용노동부와 산하 공공기관 전 임직원들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결 같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일념통천의 각오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2013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참석이 추가로 된 장의성 한국잡월드 이사장만 소개하겠습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고용정책실장으로 하여금 201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기획조정실장이 하실 순서입니다만 고용정책실장이 하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자료가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 중심으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한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산하 공공기관 현황,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편성 방향, 그리고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정원은 본부와 우리 소속기관에 57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부에 522명, 소속기관 5210명입니다.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은 1만 1160명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의 주요 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공공기관 현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정원이 5212명이고 내년도 예산안은 5조 5914억 원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원 1098명에 내년도 예산 244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315명 정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413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624명에 내년도 예산은 2729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17명 정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710억 원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정원 42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271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정원 1730명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278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정원 398명, 내년도 예산 934억 원입니다.

9쪽, 노사발전재단은 정원 156명이며, 내년도 예산은 현재 보조금으로 30억 원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정원 318명이며, 이 기관은 정부 지원 예산이 없습니다. 자체예산 편성 기관으로 연말에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한국잡월드는 지난달에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 15일 날 개관했고, 직업 관련 자료·정보를 전시하고,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48명이고 내년도 예산은 232억 원입니다.

11쪽,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여건 전망입니다.

최근 고용 동향은 금년 9월까지 취업자가 평균 46만 8000명이 증가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서 고용의 양적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지속적인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자영업자와 고령층 중심의 고용 증가세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노동시장 전망입니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금년 하반기는 당초 전망보다 낮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등이 지속될 경우에 하반기 이후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되는 등 고용 위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규모, 고용 형태 등 노동시장 내에 다양한 격차가 존재하고 장시간 근로관행도 여전히 실정입니다.

향후 10년간 인력수급 전망을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자는 239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청년층이 감소하고 고령인력의 증가 등으로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가 예상되나,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학력별 인력 수급을 보시면 향후 10년간 고졸은 32만 명 초과수요인 반면에 전문대졸 이상은 50만 명 초과공급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내년도 중점투자 분야입니다.

청년, 여성 등 국가 핵심인력의 일자리 지원에 집중투자하고,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중점지원할 계획입니다.

첫째, 청년, 고령자, 여성 등의 대상별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는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 확산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는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사람의 격차 해소와 불합리한 근로관행 개선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내년도 고용노동 예산의 총괄적인 편성 방향을 보고드리면, 고용노동부 소관 내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안의 총계는 23조 6200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1조 9000억으로 8.9%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총지출은 13조 8191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5.4%로 7000억 증가된 상황입니다.

예산은 1조 9428억이고 기금은 11조 8762억 원입니다.

15쪽입니다.

정책대상 및 기능별 주요 편성안입니다.

청년, 여성 등 노동시장 핵심인력과 베이비부머 등 주요 정책대상별 투자 확대 현황을 설명드

리면, 청년의 경우 청년취업아카데미,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 확대 등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지원을 강화하는 데 8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은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완화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등에 5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전직 지원과 고용연장 지원 강화에 267억 원을 증액한 117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에 3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 사회보험료 지원, 무급휴직·휴업 근로자 지원 신설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2664억 원을 증액한 65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기능별로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과 직업능력 개발을 확대하고 장시간 근로 개선, 산재 예방 등 좋은 일터 만들기 지원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의 경우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와 인프라 강화에 9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채용 연계형 직접일자리 사업 등 일할 기회 확대에 16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년도 고용상황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업소득과 일자리 지키기 지원에 575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청년·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현장 연계훈련 강화에 4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근로 개선 및 노사협력 예산은 14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고성채해 집중관리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산재예방 보상 강화에 4조 52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이 84억 원입니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용자에 50억 원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2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베이비부머 퇴직에 대비한 장년 재취업 지원을 위해 중견인력 경력 활용 재취업 지원에 281억 원을 편성하였고, 중견인력 경력 활용 재

취업 지원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18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열린 고용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개발·보급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현장-자격연계형 고졸인력 양성에 2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그리고 발암성 물질 시험시설 증축에 22억 원, 고객상담센터 청사 이전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9쪽 이하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근 전문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입니다.

201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재정규모는 23조 62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3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2859억 원, 고용보험기금 1조 941억 원, 산재보험기금 3464억 원, 임금채권기금 1831억 원, 장애인고용기금 74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근로복지기금은 52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와 관련해서 다소나마 고무적인 측면은 예산이 전년 대비 16.6% 증액된 것으로서 정부 전체 예산 평균 증가율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복지의 핵심적인 한 축이 고용과 근로자의 복지제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는 생산적인 복지, 지속 가능한 근로자 복지의 확보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 역량의 강화도 필요한바 인적, 청사, 공간, 장비 등의 지속적인 증대가 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복지는 개개 사업장에 대한 확인과 개개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

는 것인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인적 증대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합니다는 이러한 일반회계의 증대 및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는 인력 증대가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고용정책사업 중 직업안정기관 운영사업의 경우에는 고용서비스 인턴은 인턴 채용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글로벌 해외취업사업의 경우에는 많이 거론된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사업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고, 공단의 본질적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비를 책정할 때 그 본래적 업무에 대한 성공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으로 봤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중복적 지원 문제를 해소하면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 지원체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의 경우는 인턴 참여자의 이탈률 축소,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발굴, 운영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제고 등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과 관련해서는 보험료 지원 수준 통일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방지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실업자능력개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훈련비 상승 요인 등을 감안하여 1인당 훈련예산을 합리적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용평등실현사업 중 중견인력경력활용 재취업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중·고령 구직자에게 기업 인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신규 사업인바 집행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므로 사전에 추진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을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모성보호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모성보호급여 지

원이 확대됨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사정책사업 중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의 경우는 보조사업 종료 후 외부 평가를 위한 운영비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노사관계 선진화사업 중 텔레비전 광고 캠페인 및 국민참여형 홍보 등 일부 홍보예산은 기대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선진노사관계전문가 육성사업의 경우는 사후 평가를 위한 운영비 예산을 반영하고, 교육생 비중이 노사 일방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와 관련하여 2013년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비율이 0.27%까지 떨어지고 있어 재정안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용정책사업 중 무급휴업·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무급휴업·휴직근로자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집행계획 수립에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사업은 지원 수준과 요건이 유리한 다른 사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므로 다른 계층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영업자 전직지원사업의 경우는 고용센터나 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민간위탁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사업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용평등실현사업 중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신·출산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없이 고용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동 사업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재고용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듯한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이 없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과 관련하여 산재보험급여의 경우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기금 규모의 감액보다는 저소득자에 대한 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전년도 수준의 기금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대상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부당지원 방지를 위해 고가의 장비에 대해서는 용자사업 대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건강보호사업 중 근로자 건강센터 증설 계획은 일반회계 보건의료지원예산 등 다양한 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여유자산 비중이 다른 기금보다 상당히 높은 상황이므로 사업주 부담금 비율의 인하 및 체당금 상한액 인상 등을 통해 여유자산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체당금조력지원사업의 경우 더욱 많은 체불근로자들이 체당금 신청 과정에서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사업 중 대기업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집행이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는 지원금 지급업체를 대폭 확대하였는바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장애인취업지원사업 중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사업,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사업 및 워크투게더센터는 2013년 신규 사업입니다. 학교와 공단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학생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 등을 마련하고 철저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대위변제사업은 고용보험기금 등 다른 기금 대부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용보증을 이 사업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는바 신용보증지원 및 대위변제는 대부사업의 부수적 성격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비용은 각 기금에서 분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아파트관리운영사업 예산은 2012년과 동일

하게 편성되었으나 아파트 창틀 교체 등 노후한 시설을 조속히 보수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외에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의 경우 요구액보다 늘어난 예산사업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집행을 확실히 하여 극대화된 성과가 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적인 보고를 바쳤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 함)

○**위원장 신계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야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대체토론을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안 나와 있는데 민주당 위원님들만 대체토론을 한다는 게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소위가 구성돼 있고 소위가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소위 위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영표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홍영표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은수미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장하나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장관님, 혹시 심사에 앞서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더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다음에 기회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러겠습니다. 소위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정된 일정대로 예산안 등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어제 심사하다가 보류된 환경부 소관과 기상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계속)

나. 환경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환경부 소관

3.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가. 환경부 소관

○**위원장 신계륜** 어제에 이어서 환경부 소관과 기상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등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미 환경부 소관과 기상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등에 관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천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3년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본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부문의 물산업기반구축 사업 중 위생안전기준 인증 사후관리 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은 지역적 형평성 측면에서 사업대상 지역을 좀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양정화대책 사업 중 매입부지 사후관리 사업의 지장물 철거 및 폐기

물 처리비용은 인건비가 다소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질보전 부문의 비점오염저감사업, 공단폐수 처리시설 확충사업에 편성된 출연금은 법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실적행실적이 저조하고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간 예산조정이 많이 발생하므로 예산안 심사 시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부문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가운데 자동차 중고부품 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은 폐기물거래소 구축사업과 사업목적, 운영방식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을 통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방식을 고려하여 출연금으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자원화 사업은 민자사업인데, 제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그리고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적행실적이 저조하므로 내년도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기 부문의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사업 중 3개 신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의 집행을 효과 제고를 위하여 사업대상 선정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2013년에 새로 도입 예정이라는 점에서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연 부문의 야생화보급 및 생태우수지역 조사·보호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유사 사업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예산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중 우포늪 복원사업은 지자체의 실적행실적이 부진하여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국립공원사업 가운데 무등산국립공원의 신규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무등산국립공원의 관리를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보이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사업은 준정부기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처우수준 개선을 위해 인건비 증액이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일반 부문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 중 청주녹색도시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이 생태적인 요소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탄소관리 등 녹색도시 개념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보건기반 강화협력사업 중 친환경건강도우미 컨설팅사업은 에코벨사업 및 친환경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과 일부 업무가 중복되므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의 및 조정을 통해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추진사업 중 카나리아 이산화탄소 센서기 보급사업은 총부유세균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실내 공기질 오염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는 245명에 대하여 12개월치의 인건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011년과 2012년 집행 추이를 고려할 때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중 물이용부담금제도 홍보사업은 각 기금별로 홍보를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석면 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이고 정보소외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석면피해구조센터 인력의 역할을 석면피해구조제도 홍보 등 현장업무 중심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한국형의 수치예보 모델개발사업과 차세대 도시농림 기상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사업은 2012년 인건비나 운영비의 집행이 저조하여 이월이 예상되고 실제 인원충원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사업 중 기상업무만족도 조사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다른 만족도 조사사업에 비해 다소 비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계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위원들만이 대체토론을 하는 것은 여야 균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당 위원들만이 대체토론을 하는 것을 생략하고 대신 서면질의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서면질의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 전까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두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까지의 환경부 소관 및 기상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환경부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정된 일정대로 예산안이 여야 간의 협의와 토론 속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체토론이 서면질의로 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똑같기 때문에 소위원회 심사 때 충분히 이를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님, 혹시 오늘 회의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예산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한 시점에서 말씀하고 싶은 게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저희 환경부에서는 서면질의로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잘 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기상청장님도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저희도 서면질의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위원님들이 서면질의로 많이 놓고 갔기 때문에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아마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경부와 기상청에서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기상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환경부 소관과 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신계륜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청가 위원(2인)

김상민 심상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병호
 전문위원 이동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유영숙
 차관 윤종수
 기획조정실장 정연만
 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자연보전국장 백규석
 자원순환국장 최홍진
 녹색환경정책관 이찬희
 기후대기정책관 박천규
 상하수도정책관 김진석
 국제협력관 유연철
 대변인 박광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강형신
 국립생물자원관장 이상팔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장 이창석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박응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유승직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상배
 금강유역환경청장 오중극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이재현
 수도권대기환경청장 홍정기
 원주지방환경청장 이규만
 대구지방환경청장 심무경
 새만금지방환경청장 박미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승환
 감사 김형섭
 경영지원본부장 우종진
 기후대기본부장 윤용문
 물환경본부장 김시현
 자원순환본부장 임채환
 환경시설본부장 최규진
 연구개발본부장 신재철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정광수
 경영기획이사 박영덕
 자원보전이사 신동원
 탐방관리이사 정동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조춘구
 감사 사태수
 기획이사 이철민
 운영이사 유낙빈
 사업이사 김낙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이사 정동일
 환경산업이사 박재성
 경영기획본부장 김두환
 환경인증본부장 장재구
 녹색생활본부장 김만영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차관 이재갑
 기획조정실장 전운배
 고용정책실장 한창훈
 노동정책실장 조재정
 노동시장정책관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 이희희
 직업능력정책관 박성기
 고용평등정책관 신지창
 고용서비스정책관 정지원
 근로개선정책관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노사협력정책관 권혁태
 공공노사정책관 시민석
 정책기획관 김재훈
 국제협력관 안경덕
 대변인 김경보
 감사관 황보국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 원 장	최	종	태
중 앙 노 동 위 원 장	정	종	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	영	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	영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사 장	백	현	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사 장	이	성	규
한국고용정보원장	정	철	균
한국잡월드이사장	장	의	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	재	구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 사 장	박	중	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이	기	권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	형	남
기상청			
청 장	조	석	준
기상선진화 추진단장	Kenneth C. Crawford		
기획조정관	박	정	규
예보국장	이	우	진
관측기반국장	박	관	영
기후과학국장	엄	원	근
수치모델관리관	육	명	렬
지진관리관	김	영	신
국립기상연구소장	권	원	태
부산지방기상청장	김	성	균
광주지방기상청장	양	일	규
대전지방기상청장	서	애	숙
강원지방기상청장	조	주	영
제주지방기상청장	김	진	국
국가기상위성센터장	이	희	상
기상레이더센터장	양	진	관
항공기상청장	최	치	영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박	광	준